

시진핑 2기 경제 3大 키워드로 본 중국의 유망산업 현황과 시사점



CONTENTS

목 차

요 약 / 1

I. 2018년 중국 경제 및 산업정책 방향 / 3

II. 키워드로 본 중국 유망산업 / 5

III. 시사점 / 19

요 약

□ 2018년 중국 경제 및 산업정책 방향

- (경제기조) 2018년도의 중국 경제정책은 '13.5 계획' 정책* 기조 하에 제19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'현대화 경제체계 건설'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
* '13.5 계획' 5개 정책분야(혁신, 균형성장, 생태발전, 대외경제, 동반경제 등)
- (혁신주동) 2018년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으로 생산대국의 이미지를 선진 제조강국 즉 '혁신주동형'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속도를 낼 전망
 - 제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하여 하드웨어 선진화 도모
 - 프리미엄 소비, 녹색저탄소, 공유경제, 공급망 관리(SCM), 인력자본서비스 등 분야에서 신 성장 및 신 동력 발굴
 - 국제표준에 부합한 제도 및 운영 시스템 수립, 중국 산업의 GVC 고부가가치 부문 진입을 통한 세계 선진 제조업 클러스트 육성
- (서비스업 확대) 시진핑 집권 2기에서는 제조업 위주의 구 경제개혁 외에 신흥자원 활용 및 서비스 부문 경제 지원 등 신경제 육성도 활발히 진행 예상

□ 키워드로 본 유망산업

- ('중국제조 2025') 제조업 혁신능력과 기초능력 제고를 중점적으로, 정보기술과 제조기술의 융합 추진을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, 인공지능화, 친환경화 촉진으로 제조업 경쟁력 부문의 우위를 점함
☞ ('13.5계획' 제5편 22장/ 제조강국 전략 실시)
- (인터넷 플러스) 중국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축인 '인터넷 플러스(+)'는 초연결, 大융합 시대를 관통하는 중국의 미래 산업전략으로 채택
- (의료건강산업) '건강중국 2030(健康中国2030) 계획'에 따르면 건강 서비스업 규모는 2020년 8조 위안, 2030년에는 16조 위안 초과 예상
- (실버산업) '14~'50년 중국 노령인구 소비 잠재력은 약 4조 위안에서 106조 위안으로 증가 전망,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%에서 33% 전망

- (문화콘텐츠) ‘13.5 국가 전략성신흥산업발전규획(‘十三五’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)’에서 2020년까지 디지털 문화산업 관련 업종 생산액 규모를 10조 위안으로 확대 예정
- (영유아산업) 2016년 온라인을 통해 거래된 중국 영유아용품의 거래규모가 2,931억 6,000만 위안에 달했으며, 이는 2015년보다 33.6%가 증가
- (환경산업) ‘13.5 계획’기간 환경보호 부문 투입은 매년 2조 위안까지 증가하고 총 누적 투자금액은 17조 위안 초과 예상

□ 시사점

-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정책 기조 및 방향 주시 필요
 - ‘13.5 계획’ 과, 제19차 당대회에서 드러난 ‘현대화 경제체계 건설’에 따라 ‘혁신중국’, ‘풍요로운 생활’, ‘아름다운 중국’이라는 중국의 3개 키워드를 바탕으로 중점산업 육성
- 제조업 혁신, 신흥 서비스업, 환경산업 등 유망 분야 진출 검토
- 한중간 경제협력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필요
 - 현재 중국은 로컬기업의 자이언트화 및 China-Inside 전략으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어, 중국 기업과의 경쟁과 협력의 모델 구축을 위한 중국의 국책산업과 육성산업 진출 방안 모색 필요

I

2018년 중국 경제 및 산업정책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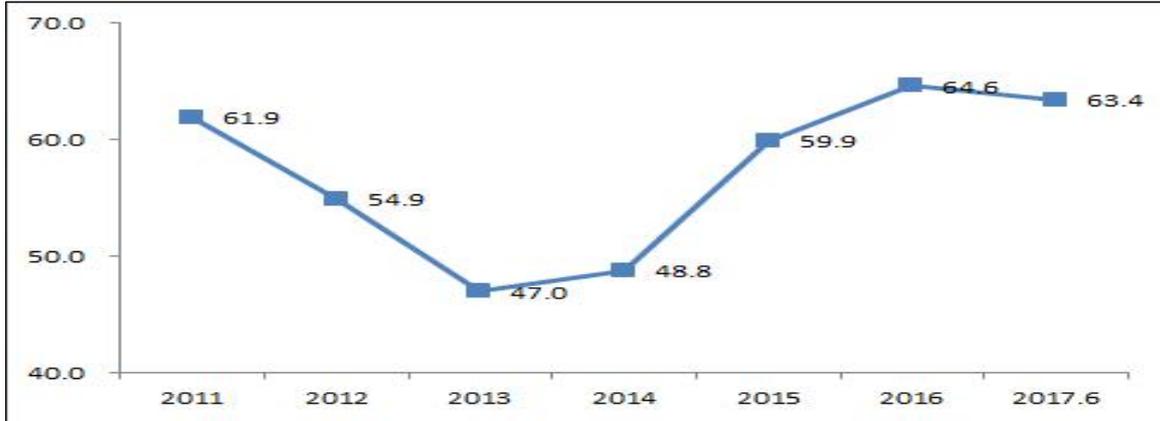
□ 경제 정책 방향

- (경제기조) 2018년도의 중국 경제정책은 ‘13.5 계획’ 정책* 기조 하에 제 19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‘현대화 경제체계 건설’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
*‘13.5 계획’5개 정책 분야(혁신, 균형성장, 생태발전, 대외경제, 동반경제 등)
 - 중국은 고도의 양적인 경제성장에서 질적인 발전 단계로 전환 중이며, 발전 전환방식, 경제구조 업그레이드화, 성장 동력의 전환기에 처해 있음
 - ‘현대화 경제체계 건설’은 중국 발전의 전략적 목표로 공급 측 개혁이 중심이 되어 경제발전의 질적, 효율적인 변혁을 통한 중국경제 혁신력과 경쟁력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둠
- (혁신주동) 2018년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으로 생산대국의 이미지를 선진제조강국 즉 ‘혁신주동형’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속도를 낼 전망
 - 제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하여 하드웨어 선진화를 도모
 - 프리미엄 소비, 녹색저탄소, 공유경제, 공급망 관리(SCM), 인력자본 서비스 등 분야에서 신 성장 및 신 동력 발굴
 - 국제표준에 부합한 제도 및 운영시스템 수립, 중국 산업의 GVC 고부가가치 부문 진입을 통한 세계 선진 제조업 클러스트 육성
- (서비스업 확대) 시진핑 정부 집권 2기에서는 제조업 위주의 구 경제 개혁 외에 신홍자원 활용 및 서비스 부문 경제 지원 등 신경제 육성도 활발히 진행예상
 - “제조업을 기반으로 국가 부흥을 이루는 한편, 국민은 소비를 통해 행복을 누린다(消费富民, 制造兴国)”는 정책 하에 소비방식의 다양화, 소비환경 개선 등으로 내수 확대 촉진

* 소비시장 규모 : '15년 USD 4.6조 ⇒ '20년 USD 7.7조 예상

* 인당 GDP(위안) : '12년 40,006 ⇒ '14년 47,203 ⇒ '15년 50,251 ⇒ '16년 55,413

<최종 소비지출의 경제성장기여도>



자료원 : 중국국가통계국

- (생태환경보호) 중국 고도성장의 부산물인 파괴된 생태계 복원으로 하늘과 맑은 물이 있는 나라(美丽中国)로의 이미지 변신
· 환경규제 정책과 친환경산업 육성정책 실시 확대

□ 중점 산업정책

- (3대 경제 키워드) 2018년 이후 중국 산업 정책은 ‘13.5 계획’, 제19차 당 대회 보고전문에 드러난 혁신중국(创新中国), 풍요로운 생활(美好生活), 아름다운 중국(美丽中国) 등 3대 키워드로 집약된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
- (유망산업) 전통 제조업 업그레이드 및 인터넷 플러스(+) 관련 제품 및 설비, 중국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서비스업, 환경산업 관련 산업 활성화 예상

<3대 키워드 주요 내용>

키워드	세부 내용
혁신중국 (创新中国)	·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한 성장, ‘중국 제조 2025’ 및 ‘인터넷 플러스’ 전략과 연계
풍요로운 생활 (美好生活)	· 소비 업그레이드가 주요 방향으로 중국인들의 먹고, 즐기고, 사용하는 분야가 향후 지속 성장 · 영화, 게임, 출판 등 디지털 경제의 주요 미디어 분야 지속 성장 예상
아름다운 중국 (美丽中国)	· 생태환경 건설을 중시한 환경보호 분야

* 자료원 : 코트라 해외시장

II 키워드로 본 중점 유망산업

□ 혁신중국(创新中国)

혁신중국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 국가 발전 전략으로 대표적으로 '중국 제조 2025'와 '인터넷 플러스' 산업 육성 정책을 들 수 있음

- ('중국제조 2025') 제조업 혁신능력과 기초능력 제고를 중점적으로, 정보기술과 제조기술의 융합 추진을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, 인공지능화, 친환경화 촉진으로 제조업 경쟁력 부문의 우위를 점함
 - ☞ ('13.5규획' 제5편 22장/ 제조강국 전략 실시)
- '중국제조 2025'는 2009년 10대 산업진흥계획, 2012년 7대 산업정책에 이어 3년 만에 나온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국의 경쟁력 확보 의지를 구현한 것으로 보임
 - . 노동집약적 제조 방식에 ICT 기술을 접목, 품질 및 브랜드 가치 향상, 환경 보호 등의 질적 성장을 도모
 - . 스마트 공장, 녹색제조 등과 10대 유망산업 육성 정책을 병행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기존 정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경제구조의 전환을 도모

〈 '중국제조 2025' 전략 10대 중점산업과 5대 중점 프로젝트〉

10대 중점산업	차세대 정보기술,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, 전력설비, 선진 궤도교통설비, 항공우주장비,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, 신소재,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, 농업기계장비,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
5대 중점 프로젝트	제조업 혁신센터, 스마트제조공정, 공업기반 강화공정, 녹색제조 공정, 고급장비 혁신공정

자료원 : 중국 국무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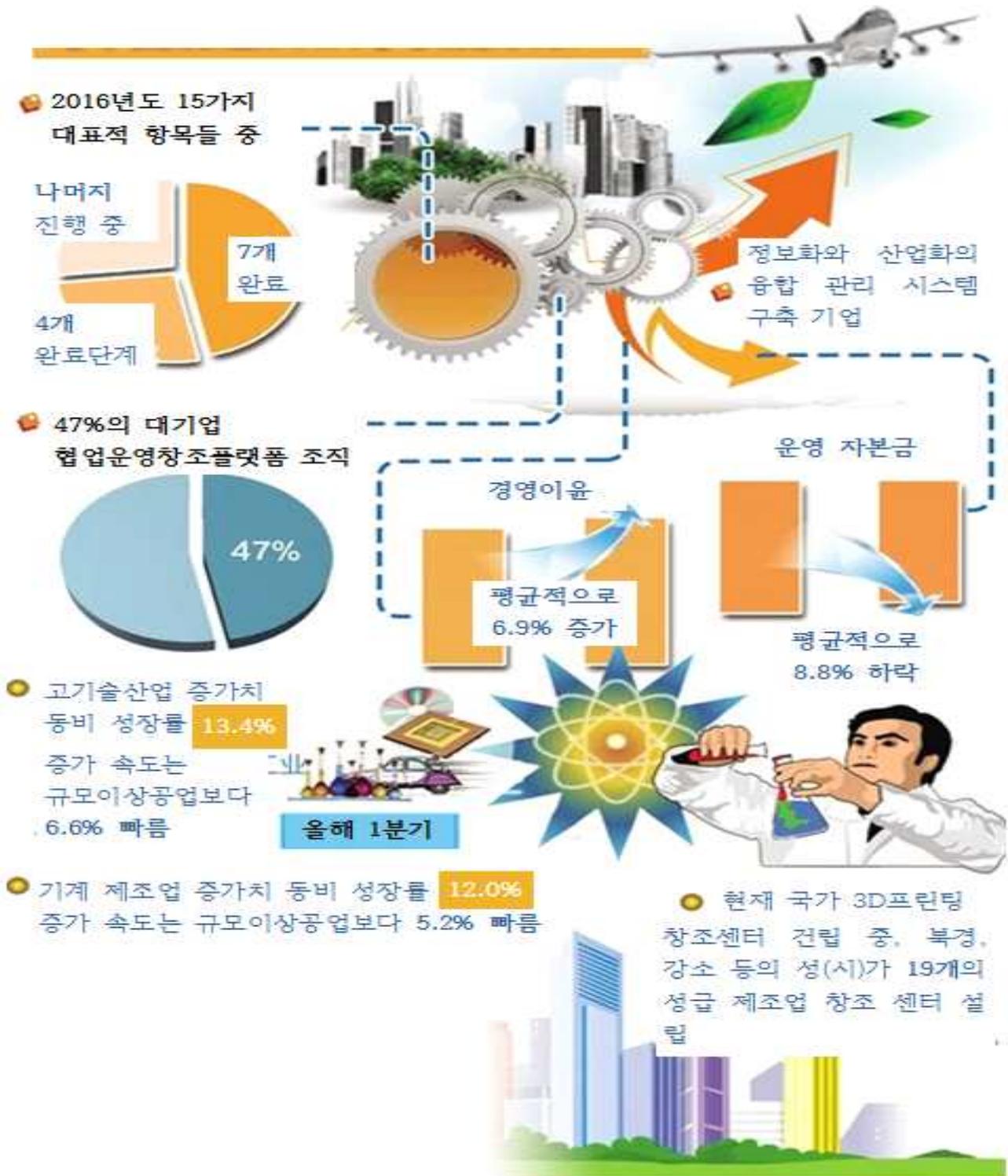
〈'중국 제조 2025' 추진 성과〉

('17. 3.11일 현재)

구분	세부 내용
5대 공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1개 부문 지원계획 추진 - 국가제조업혁신센터 건설, 지능(스마트화)제조, 공업기지, 녹색제조, 하이엔드장비혁신 등 5대 중점 공정 실시 - 최초 혁신센터 설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동력전지혁신센터, 19개 성급 제조업혁신센터 건설 - 226개 지능제조업 종합 표준화 시범검증 및 신모델 응용 프로젝트 추진, 109개 지능제조 시범 프로젝트 선정 - 핵심기초 부품, 중요기초재료 및 선진 기초공예의 치명적 결함 해결 - 하이엔드 장비혁신 성과 지속 출현, 고속철도 핵심기술 및 부대 기술 개발 성과 획득
중점목표 획득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6년 추진 계획인 주요 프로젝트 중 7개 완료, 4개 거의 완료 단계임 - 일부 프로젝트 성과 시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복합공업 로봇, 소량 물량공급을 위한 시스템 연구 개발이 성공한다면, RV 감속기 생산 및 국외로부터의 수주 가능
시범지역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장성 닝보 등 12개 시범도시 및 장쑤성 쑤난(苏南) 5개 도시 등 4개 시범 도시군 등 총 31개 도시를 '중국 제조2025' 시범도시로 선정 ('17.10.19일자/제19차 당대회)
제조업 및 인터넷 플러스 융합 효과 극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6년 기업 디지털화 연구장비 보급률 61.8% 달성, 주요 공정 CNC화율 33.3% 달성 - 대기업의 47%가 협업 운용을 위한 혁신 플랫폼, 국유기업의 인터넷 플러스 시스템 즉 '双创' 플랫폼 10개를 구축, - 4,000여 개 기업의 공업화와 정보화 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비용 평균 8.8% 경감, 경영이윤은 평균 6.9% 증가
향후 추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대 공정 추진 가속화 - '중국 제조 2025'의 시범도시로 20~30개 도시군 선택 - 기술개조 업그레이드 작업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점기업 지능화(스마트화) 개조, 기초능력 제고 등 10대 공정 지원 · 공업기업 기술제조 업그레이드 투자를 위한 가이드 제작 배포 - 제조업 발전 환경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행정조치 간소화, 서비스 개혁 · 정확한 산업정책 실시 · 중소기업 역량 확대 지원 - 국제교류 협력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중국제조 2025'와 관련된 국가와의 협력 강화 · 국제 스마트 제조 협력 확대 · '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산업 투자 협력

자료원 : 중국 공업화신식화부(www.miit.gov.cn)

〈'중국 제조 2025' 추진 성과 지표〉



자료원 : 中國經濟日報 (17.5.9)

- (인터넷 플러스(+)) 중국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축인 '인터넷 플러스'(+)
는 超연결, 大융합 시대를 관통하는 중국의 미래 산업전략으로 채택됨
- 융합을 독려하는 생태계 조성으로 정부, 기업, 학계뿐만 아니라 글로벌
기업으로까지 협업의 경계를 적극 확장
- . '16년 중국의 디지털 경제규모는 약 22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
25%, 중국 GDP의 30%를 차지하고 있음
- . 데이터 소스, 플랫폼, 첨단 기술을 보유한 알리바바, IBM 등 국내외 기업이
보유한 자산을 중국 정부의 행정, 국민복지 서비스 향상 등에 활용
- .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합작 등을 통해
글로벌 수준으로 중국 기업의 기술력을 견인
- . 자국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와 ICT 연계, 외자유치 등 가용 자본 확충에도 주력

〈'인터넷 플러스(+)' 추진 전략〉

구분	내 용
발전 목표	(2018년) 제조업, 농업 등 인터넷과 산업의 결합 제고, 사회서비스 내 영역 확대, IoT, 클라우드 컴퓨팅, 인공지능, 보안 등 기반 확보, 인터넷 산업 표준 화 및 법규 확립(2025년) 인터넷화, 지능화, 서비스화, 협력화를 기본 골자로 한 인터넷 플러스 산업(신경제)생태계 구축
7대 육성 정책	1) 인프라 구축, 2) 혁신 발전 강조, 3) 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정비, 4) 해외 협력 강화, 5) R&D 확대 및 지원, 6) 금융 지원 확대, 7) 핵심 조직 구성
11대 핵심 분야	1) 창업 2) 제조업 3) 현대농업 4) 에너지 5) 금융 6) 복지 7) 물류 8) 전자 상거래 9) 교통, 10) 환경, 11) 인공지능 등 분야와의 결합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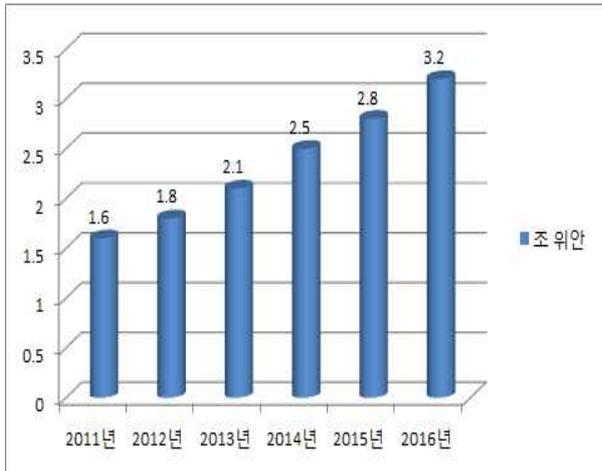
자료원 : 중국 국무원

□ 풍요로운 생활(美好生活)

* 중국 제19차 당대회때 시진핑 주석은 “향후 중국 인민들은 물질 문화생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민주화, 법치화, 공평, 정의, 안전, 환경 등 방면 등 요구가 지속 증가할 것이다”고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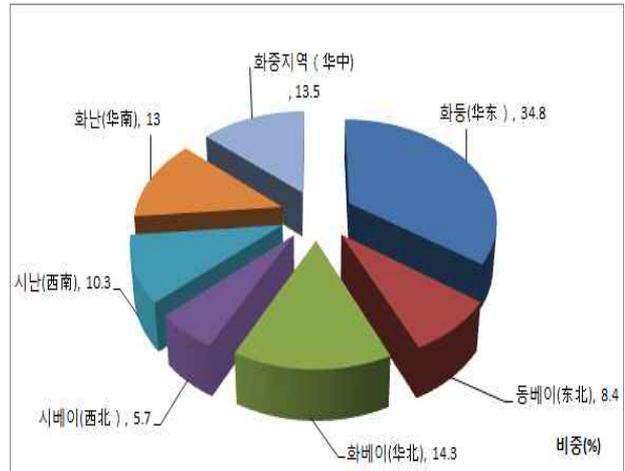
- (의료건강산업) 중국 국무원은 '16년 10.25일 '건강중국 2030'(健康中国 2030) 기획 전문을 발표하여 의료건강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
 - (현황) '건강중국 2030' 기획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성장, 보건과 건강을 위한 업무 시행, 건강 최우선 고려, 혁신적 개혁과 과학발전 실현, 공평, 공정 원칙 고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.
 - . 시진핑 주석은 '16.8.19~2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'중국 위생 및 건강 대회'에서 “인민의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방위적으로 인민 건강을 보장하는데 노력하겠다”고 강조. 의료건강산업 지원 의지 표명
 - . '건강중국 2030'(健康中国2030) 기획'에 따르면 건강서비스업 규모는 2020년 8조 위안, 2030년에는 16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
 - . 최근들어 중국에서는 포괄적인 건강산업인 '대건강산업(大健康产业 /Comprehensive Health)' * 개념이 주목받고 있음
 - * '대건강'은 신체적 건강 외에도 정신적, 사회적, 환경상의 건강까지 포함한 개념임
 - * '대건강산업'에는 의료제품, 헬스케어제품, 영양식품, 의료기계, 건강관리, 건강 컨설팅 등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모든 산업이 포함됨
 - . '11~'16년 중국의 '대건강산업' 규모는 매년 지속 증가. '11년 1조 6천억 위안에서 '16년에는 100%가 증가한 3조 2천억 위안에 달함
 - . 건강서비스업에 대한 지역 및 소비 집중도를 보면 화둥지역의 비중이 34.8%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화베이 지역 14.3%, 화중지역 13.5% 순임

〈'11~'16년 중국 대건강산업 규모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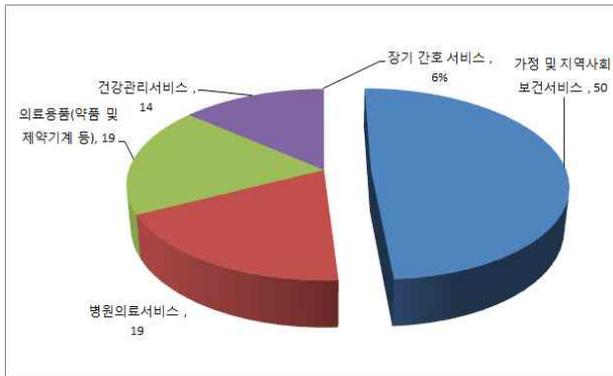
자료원 : 前瞻产业研究院

〈건강서비스업 지역 소비집중도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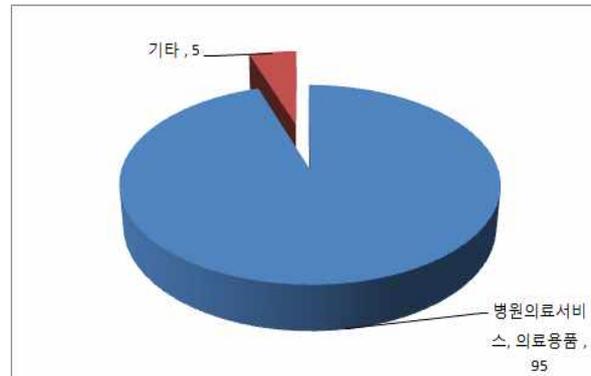


- (성장 잠재력 방대) 건강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산업 중 하나로,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건강산업은 여전히 초급단계에 놓여 있음
- . 선진국은 건강산업이 GDP의 15%를 초과, 중국의 건강산업은 GDP의 4~5%에 그쳐 발전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
- . 동시에 산업구조 부문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전면적으로 의료건강산업 세분화가 균형이 잡혀 있으나, 중국 건강산업은 의료 및 의료용품 외에 기타 산업 세분화가 개발 초기에 있어 향후 발굴 잠재력이 많음
- . 중국 첸잔산업연구원(前瞻产业研究院)은 향후 중국의 의료건강산업은 급속도로 발전, '20년에는 10조 위안 규모에 달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신 견인차가 될 것으로 예측

<미국 대건강산업 구조>



<중국 대건강산업 구조>



자료원 : 前瞻産業研究院(www.f.qianzhan.com)

○ (실버산업) 중국 노령인구수의 지속 증가로 소비 잠재력 확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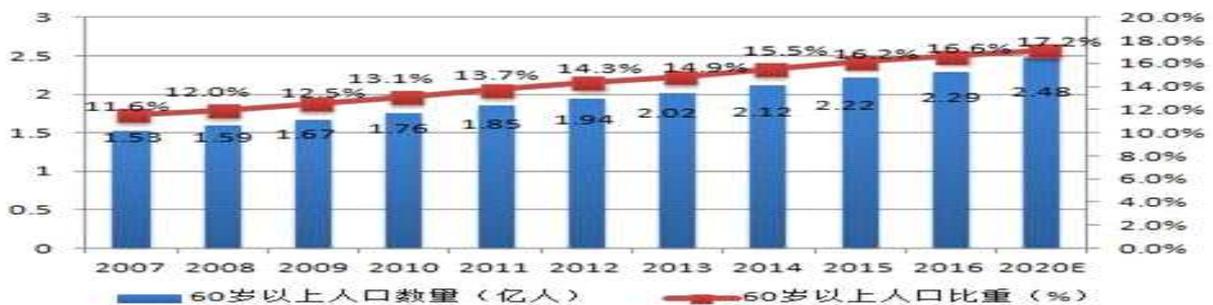
- 중국 국무원이 '17년 2.28일 발표한 <'13.5' 중국 노령 사업 발전 및 양로 체계건설계획>에 따르면 '20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년인구는 약 2억 4,800만 명으로 총 인구 중 점유비중이 17.2% 예상*

* 2016년 기준 중국의 노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.5%를 차지

- . 고령노인은 2,900만 명으로 증가, 독거노인은 1억 1,800만 명 정도 예상
- . 이에 따라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도 지속 증가, 농촌 실질 거주인구의 노령화 정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

- '중국 실버산업 청서' 보고에 따르면 '14~'50년 중 중국 노령인구 소비 잠재력은 약 4조 위안에서 106조 위안으로 증가 전망,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%에서 33% 전망

<중국 노령인구 현황>



자료원 : 중국산업발연구망

- 특히 중국이 발표한 실버산업 스마트화* 발전계획('17~'20년)에 따라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실버산업의 발전 예상

. '20년까지 100개 이상의 스마트 건강 시범기지 건설, 100개 이상의 선도기업 육성책 발표

- * 인터넷, Io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인 복지 및 실버산업 분야에 있어 적용되는 스마트 기술 및 산업 제반을 일컫는 용어로, 저비용, 고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실버산업의 신트렌드임
- * 노인의 몸에 센서를 부착해 주택, 활동영역에서 건강관리, 위치 추적, 생활 활동, 실신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, 가족, 간호사, 병원, 119 등에 해당 신호를 보내는 서비스를 말함

- 중국 일부도시에서는 사물인터넷(IoT)와 양로서비스를 각각 시범적으로 운영, 향후 사물인터넷 활용 양로서비스 업종 활성화 예상

<중국 '사물인터넷(IoT)+양로' 서비스 시범 운영 현황>

지역	시범 서비스 내역	세부 내용
랴오닝성 (辽宁省)	'IoT+독거양로+ '스마트 타운' 계획 시동	- '16년 4.30일 'IoT+독거양로+스마트타운'은 우리허 (五里河) 독거양로 서비스센터에서 시범운영 실시 - 노인들에게 팔찌형식의 스마트 단말기 제공, 긴급 시 버튼만으로 서비스 센터 및 미리 지정한 스마트폰으로 위치 정보 및 신호 전송 가능
우한시 (武汉市)	'IoT+양로' 클라우드 플랫폼 시범 운영	- '16년 우한시는 3년간 6천만 위안 투자, 시 전체를 통합하는 양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- 스마트폰,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으로 온/오프라인에 서도 실버세대에게 건강, 안전, 생활 서비스 제공
안후이성 (安徽省)	'IoT+양로' 서비스 시범 운영	- '17년 '13.5 안후이성 실버산업 발전 및 양로체계 건설계획('十三五'安徽省老龄事业发展和养老体系建设规划) 을 발표 . 5년간 재택양로 기초로 양로기관, 정부부처, 의료기관 공동으로 양로서비스체계 설립 계획 . 도시 양로서비스 보급률 90% 이상, 농촌지역 양로 서비스 보급률 80% 이상 실현 계획

산둥성 (山东省)	'IoT+양로' 서비스 시범 운영	- '17년 7.28일 '13.5 산둥성 실버사업 발전과 양로 체계건설규획('十三五'安徽省老龄事业发展和养老体系建设规划) 발표 · 2020년까지 5500여 곳, 1만 2000개 이상의 양로서비스 센터를 설립,온/오프라인 결합 양로서비스 제공 예정
장쑤성 (江苏省)	'IoT+양로' 서비스 프로젝트	- 40명 독거노인에게 양로서비스 기기 발급 · 노인들의 위치 추적 및 건강관련 정보 실시간 체크로 양로원, 자녀들에게 전송할 계획. 해당 기기에는 긴급버튼, 통화기능이 포함돼 있음

자료원: 코트라 해외뉴스

<주요 진출 분야>

제 품	세부 내역
건강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	- 건강 관리용 스마트 팔찌, 스마트 맥박계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- 혈압, 혈당, 산소 농도 등의 수치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예방 할 수 있게 함
휴대용 건강검진 디바이스	- 가정 및 지역 사회 내 의료기관에 구비된 통합형 스마트 건강검진 디바이스를 이용해 각종 건강 관련 수치를 실시간으로 체크 -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관리 가능
셀프 건강검진 디바이스	- 공공장소 등에 셀프 건강검진 설비를 마련, 언제 어디서든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
스마트 간호기기	- 스마트 휠체어, 스마트 간병 침상, 치매노인을 위한 길 잃은 방지용 위치 추적기 등 실버 세대를 위한 스마트 기기 - 사회 및 가정에서의 양로 서비스 효용을 높임
가정용 로봇	- 간병 및 가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기 활동 보내기, 안전사고 예방 등을 도와주는 가정용 로봇 - 가정에 배치해 실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 제공
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	- 인터넷,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에 집적한 개인별 데이터를 각급 의료기관 및 양로 서비스 센터에 연결 -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판독 및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양로 서비스 추구

자료원 : 중국 공업화학정보화부 사이트(工信部网站)

- (문화콘텐츠) ‘13.5 계획’ 발표 전문에 따르면 ‘20년에는 문화산업이 중국경제의 지주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
- (정책) ‘13.5 국가전략성신흥산업발전계획(‘十三五’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)’에서 2020년까지 디지털 문화산업 관련 업종 생산액 규모를 10조 위안으로 확대 예정
 - . 방대한 소비 잠재력, 인터넷 발전, 중국내/외 문화산업 수요는 중국의 신 경제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
 - . 이를 위해 중국 문화부는 ‘13.5 문화산업 발전계획’에서 문화콘텐츠 11개 분야*에 대해 정책적 지원 확대
 - * 연예, 오락, 애니메이션, 게임, 독창적 디자인, 인터넷 문화, 문화여행, 예술품, 공업예술, 문화전시회, 문화 장비 제조
- (GDP 성장 속도 상회) 최근 들어 중국 문화산업의 성장 속도는 GDP 성장 속도를 웃도는 등 뉴노멀(신창타이)하에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은 안정적 성장을 보이고 있음
 - . ‘16년 중국 문화 및 관련 산업 증가액은 ‘12년의 1조 8,071억 위안에서 3조 254억으로 67.4% 증가. 3조 위안을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, GDP 비중도 2012년의 3.48%에서 4.07%로 상승
- (‘인터넷+ ’융합) ‘16년 중국 문화산업 규모이상 기업의 영업수입은 8조 31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.5% 증가
 - . 두 자리 이상 성장을 보인 분야는 문화정보 전송서비스업(30.3%↑), 문화예술 서비스업(22.8%↑), 문화레저오락서비스업(19.3%↑) 등임.
 - . 인터넷의 빠른 발전으로 문화콘텐츠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짐. 문화콘텐츠 산업과 인터넷의 융합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방향을 전환시켰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

- (동부지역 주도) '16년 지역별로 보면, 동부지역의 규모 이상 문화 및 관련기업의 영업수입이 5조 9,766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중 74.4% 비중 차지, 그 다음이 중부지역, 서부, 동북지역 순임

<권역별 문화산업 발전 현황>

권역명	문화 산업 관련 기업의 영업수입	점유비중	증가속도
동부지역	5조 9766억 위안	74.4%	7%
중부지역	1조 3641억 위안	17.0%	9.4%
서부지역	5963억 위안	7.4%	12.5%
동북지역	943억 위안	1.2%	-1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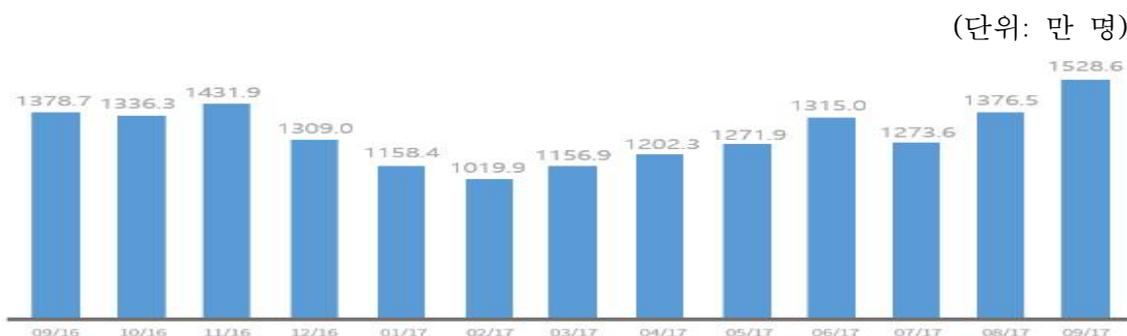
자료원 : 和訊新聞(中國文化消費升勢強勁, 文化產業發展迅速), ('17.6.22)

- (유망분야) IP 라이선싱, VR 콘텐츠, 모바일 게임 등을 들 수 있음
 - . (IP 라이선싱) 문학, 게임, 영상, 애니메이션 등 유망한 IP 라이선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
 - * 특히 게임IP ⇒ 드라마, 애니메이션IP ⇒ 게임 등 다른 콘텐츠의 IP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 등 활용분야가 확대 추세
 - . (VR 콘텐츠) VR 기술로 인해 관련 콘텐츠 수요가 크게 증가 전망
 - * VR 콘텐츠는 동영상, 게임, 여행 등 다양한 분야 응용 가능
 - . (모바일 게임) '16년 중국 게임산업은 이미 모바일 게임이 PC게임을 추월했으며,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모바일 게임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
 - * 변화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참신한 제품 개발이 필요

○ (영유아산업) '16년 1월 1일부로 실시하고 있는 두 자녀 정책에 따라 영유아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

- '17년 CBME(Children Baby Maternity Expo China) 중국 영유아산업 조사 보고'에 따르면 '17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 86%에 달하고, 또 66%의 기업이 20%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 - . 육아에 대한 개념과 소비가 발전함에 따라 유아 및 아동용품 시장의 프리미엄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
- 영유아제품의 온라인상 거래 활발
 - . '영유아 전자상거래 앱 산업 연구보고'에 따르면 '17년 9월 기준 영유아 전자상거래 앱 사용자는 1,500만 명을 넘어섬
 - . 중국 온라인 영유아시장 추세와 예측보고('13~'19년)에 따르면 '16년 온라인을 통해 거래된 중국 영유아용품의 거래 규모가 2,931억 6,000만 위안에 달했으며, 이는 '15년보다 33.6%가 증가한 것임

<최근 1년 간 영유아 전자상거래 앱 사용자 현황>



자료원 : 极光빅데이터

- . 영유아 전자상거래 앱을 통해 주로 구매하는 물품은 아기 옷, 신발 등이 25%로 1위를 차지했고, 기저귀와 물티슈 등 위생용품이 24%로 2위, 그 밖에 분유, 영유아 샤워용품, 장난감 등을 많이 구매했음

□ 아름다운 중국(美丽中国)

- * 美丽中国은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(2012년)에서 처음 제시. 경제건설, 정치건설, 문화건설, 사회건설 등 방면에서 '생태문명건설'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
- * '15년 10월 개최된 제18차 5중전회에서 '美丽中国'을 '13.5 계획'에 포함.
- * '17년 10.18일 시진핑 주석의 제19차 당대회 보고 중 '생태문명체제개혁' 추진 가속화로 깨끗한 중국(美丽中国) 건설 천명

- (아름다운 중국) '13.5 계획'의 주요 국정목표로 포함돼 온 생태계 보호 정책의 추진은 제19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
 - 최근 2년간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대적인 환경규제 및 단속은 이러한 중국의 국정정책을 반영한 것임
 - . 중국 정부의 강력한 환경보호 의지는 관련 산업 제품 및 설비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
 - .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'13.5 계획' 기간 환경보호 부문 투입은 매년 2조 위안까지 증가하고 총 누적 투자금액은 17조 위안 초과 예상
 - 중국 공업신식부(工业和信息化部)는 '17년 8월 말 '환경보호 장비 제조업 발전 가속화 추진을 위한 지도의견' 발표
 - . 지도의견에는 대기오염 예방장비, 수질오염 예방장비, 토양오염 수복 장비 등 총 7개 중점 영역을 포함한 환경보호 장비 제조업의 발전 가속 추진 내용 포함
 - . '20년까지 산업구조를 최적화해 100억 위안 규모의 기업 10개 이상, 총 산업규모를 1조 위안 이상으로 육성하는 것을 포함

- 실제 '17년 9월 환경보호 장비 제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 중
- . 공업신식부에 따르면 '16년 1월 말 기준 환경보호 장비 생산능력이 818,648대로 동기 대비 25.8% 증가
- . 매출은 2,951억 7,0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7.9% 증가했으며, 이윤은 202억 1000만 위안으로 9.1% 증가함
- . 장비의 수출입 총액은 271억 위안으로 무역수지 흑자 9억 5000만 위안 기록

〈'13.5' 계획 환경부문 4대 투자 부문〉

구 분	세부 내역
도시 및 농촌 오수처리 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3.5 계획' 신규 증설 오수처리 시설 규모 일 4,890만^m - 오수 처리 개조시설 규모 일 4,053만^m 추산 - '13.5 계획' 중 도시 오수처리시설 총 5,829억 투자 예상 - '13.5 계획' 중 중국 농촌 1억 6천만 농가의 생활 오수 처리를 위한 건설 투자 시 총 1조 6천억 위안 소요예상
탈황, 탈질산 시장 확대, 설비제조 및 기술 업그레이드 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규모 연 평균 10% 증가 - 환경보호 장비제조업 연평균 20% 증가
청정에너지 및 신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(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, 大气10條) 발표로 2017년까지 매탄 에너지 소비 총량을 65% 이하 감축
PPP 활용 환경부문 프로젝트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수처리, 탈황, 탈질산 장비 개조, 청정 에너지원 발전, 신형 에너지 과학적 응용 부문에서 PPP 활용 사례 빈번

자료원 :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외자기업 진출 사례(2017. 5월)

III 시사점

□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정책 기조 및 방향 주시 필요

- 중국은 ‘13.5 계획’ 정책과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‘현대화 경제체계건설’에 따라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육성 방향 설정 - 이에 따라 ‘혁신중국(创新中国)’, ‘풍요로운 생활(美好生活)’, ‘아름다운 중국(美丽中国)’ 이라는 3대 경제 키워드에 대한 이해와 중국 비즈니스 방향 검토 필요
- (혁신주동) ‘18년은 중국 개혁개방의 40주년이 되는 해로, 그간 굳혔던 생산대국의 이미지를 선진 제조강국 즉 혁신강국으로의 이행을 더욱 강하게 추진 예상
- (서비스업 확대) 신흥자원 활용 및 서비스 부문 경제지원 등 신경제 육성 활발 예상
- (생태환경보호) 푸른 하늘과 맑은 물이 있는 나라(美丽中国)를 만들기 위해 환경규제 및 친환경 산업 육성 등 투트랙 정책 실시

□ 제조업 혁신, 서비스업, 환경산업 등 유망 분야 진출 검토

- (‘중국제조 2025’ 대응 진출) ‘중국제조 2025’ 발표 후 제조업의 혁신 관련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음
- 중국 공업신식부가 발표한 ‘중국 제조 2025’ 추진성과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, 스마트화 제조기지 등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음
- .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관련 프로젝트 및 시범 지역을 목표로 한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연구 필요

- . 중국이 부품 국산화 전략(China-Inside) 전략으로 기술력이 향상되었으나, 첨단기술 분야는 여전히 외국 수입 의존도가 높음
 - . 중국기업과 협업으로 ICT 및 첨단산업 분야 협력 창출 기대
 - . 단순부품 수출보다는 현지기업과의 제휴로 직접진출, 기술제휴, 인수 등 방식을 통한 진출도 검토 필요
- (서비스업) 제19차 당대회때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들의 물질적 생활과 안전 환경 등 부문의 수요 확대 예상, 지원 강화 언급
- 의료건강산업, 실버산업, 문화콘텐츠, 영유아산업 등 중국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으로 내수시장 확대 예상
 - 각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 및 지방정부의 육성 정책 및 타겟 대상 및 세부 진출 분야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시작으로 꼼꼼한 진출 전략이 필요
- . (의료건강산업) '건강중국 2030'(健康中国2030) '규획' 발표에 따르면 건강 서비스업 규모가 '20년 8조 위안, '30년에는 16조 초과 예상
 - . (실버산업) '14~'50년 중국 노령인구 소비 잠재력이 약 4조 위안에서 106 조 위안으로 증가 전망, GDP 점유율 8%에서 33% 증가
 - . (문화콘텐츠) '20년까지 디지털 문화산업 관련 업종 생산액 규모 10조 위안으로 확대 예정. IP 라이선싱, VR 콘텐츠, 모바일 게임 등 유망
 - . (영유아산업) 두 자녀 정책 실시로 방대한 내수시장 활성화, 프리미엄급 영유아제품 시장 형성. 특히 온라인상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보임

- (환경산업) 중국 정부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규제와 친환경산업 육성은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 호기로 작용할 수 있음
-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'13.5 계획'기간 환경보호 부문 투입은 매년 2조 위안까지 증가하고 총 누적 투자금액은 17조 위안 초과 예상
 - . 대기오염 예방장비, 수질오염 예방 장비, 토양오염 수복 장비 등 총 7개 중점 영역을 포함한 환경보호 장비 제조업의 발전 가속화
 - . 중국 기업에 환경제품 수출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 경우, 공동 프로젝트 추진 가능

□ 한중간 경제협력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필요

- (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) 현재 중국에서는 글로벌기업 뿐만 아니라 로컬기업의 자이언트화 및 China-Inside 전략으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
- 중국 기업과 경쟁과 협력의 모델 구축을 위한 중국의 국책산업과 육성산업 진출 방안 모색 필요
- (서비스업 부문으로 진출 확대 필요) 중국이 신창타이 시대에 들어간 '11~'15년간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현황을 보면 서비스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, 아직까지 투자금액에서는 제조업이 80%에 달하고 있음
- 총 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
 - . 투자신고건수: '12(18.8%), '13(21.1%), '14(24.3%), '15(24.9%), '16(25%)
 - . 신규법인수 : '12(23.3%), '13(25.1%), '14(27.4%), '15(27.2%), '16(28.5%)
 - . 투자금액 : '12(14.9%), '13(8.3%), '14(9.8%), '15(13.4%), '16(16%)

○ (지역 맞춤형 전략) '중국제조 2025', 의료건강산업, 실버산업, 문화콘텐츠, 환경산업 등은 중국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, 지방정부도 해당 지역의 정책 및 육성 산업 분야를 속속 발표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맞춤형 전략으로 진출 필요

- 일례로 중국이 지역별로 실시하는 '사물인터넷(IoT)+양로' 서비스 시범 사업을 파악하고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 분야를 타진하진 것도 필요

- 끝 -



작성자
◆ 동북아사업단 정도숙 박사



KOCHI 자료 17-015

시진핑 2기 경제 3大 키워드로 본
중국의 유망산업 현황과 시사점

발행인 | 김재홍
발행처 | KOTRA
발행일 | 2017년 12월
주소 |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
(06792)
전화 | 02) 600-7119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문의처 | 중국사업단
(02-3460-7414)

ISBN : 979-11-6097-486-7(95320)

Copyright © 2017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
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



시진핑 2기 경제 3大 키워드로 본 중국의 유망산업 현황과 시사점